



두충과에는 두충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식물과 비교하기 쉽지 않다

두충, 시대 흐름에 따라 방치되다

우리학교 꽃 이야기 (16)

안범철 자연사박물관 학예연구자

동의마당에 큰 키의 나무가 두 그루있다. 은행나무들 사이에서 키는 비슷하고 잎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이 나무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 나무를 처음 본 것은 아마도 학생으로 학교를 다닐 때였던 것 같다. 하지만 이 나무의 이름을 알기까지는 꽤 오랜시간이 걸렸다. 꽃도 찾아보기 힘들고, 열매도 특이하게 생겼다. 잎은 우리가 흔히 보는 나뭇잎과 별로 다르지도 않고, 특징도 알기가 쉽지 않았다. 흔한 듯 하면서도 쉽게 보지 못했던 궁금چی 많았던 나무다.

나무줄기는 회색에 가깝고, 잎은 약 15cm 정도 되며, 열매는 10월 이맘때쯤 볼 수 있는데 긴 타원형이며 날개가 있어서 바람에 쉽게 날아갈 수 있게 생겼다. 열매나 잎을 자르면 하얀색의 섬유질이 나온다. 이 나무를 열심히 관찰하고 도감에서 찾아본 결과 두충과(Eucommiaceae)의 두충(Eucommia ulmoides Oliv.)인

것을 알게 되었다.

두충과에는 두충 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식물과 비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두충과 비슷한 식물들은 중국, 유럽, 미국 등지에서 화석으로 발견 되는데 이들은 신생대 초기인 팔레오세부터 마이오세에 걸쳐서 6종이 있었고, 지금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두충 하나만 남아있다.

현존하는 두충의 원산지는 중국이지만 야생상태의 두충은 이미 없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 보거나 약재로 사용되는 두충은 거의 재배를 통해서 명맥이 이어지고 있어서 자연상태의 두충은 거의 사라져 멸종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두충이라는 이름은 옛날에 두중(杜仲)이라는 사람이 이 나무로 차를 마시고 깨우침을 얻게 된 것을 유래로 한다. 원산이 중국인만큼 우리나라에서도 두충이라고 사용하였으나 한문으로는 杜仲(두중)이라고 쓴다. 또 다른 이름으로는 나무껍질에 실 같은 투명한 섬유질이 많아서 목면(木綿)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우리나라에 티백(tea bag) 차가 처

음 들어 왔을 때 다양한 종류의 차가 만들어진 적이 있다. 지금도 남아 있는 대표적인 인기 차인 녹차나 둥굴레차와 함께 이 두충차가 인기 있는 차중에 하나였다. 지금은 티백 두충차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지만 처음에는 둥굴레차보다 쉽게 구할 수 있는 차 종류였다. 수요가 많았으니 두충을 재배하는 농가도 꽤 많았다. 지금도 가끔 산을 다니다보면 울창한 숲인데 같은 키, 같은 두께의 나무들이 뻗뻗하게 관리도 안 된 채 자라고 있는 풍경을 볼 수 있다. 대부분 이 두충의 재배지이고, 지금은 경제성이 떨어져서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대단위로 나무를 심어서 재배를 하고 경제성이 없어서 방치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편치 못하다.

두충의 효과는 혈압강하, 항노화, 콜레스테롤강하, 항염, 진정, 진통, 면역 조절, 혈액응고, 자궁수축, 항알레르기, 항균작용 등이라고 보고되었다. 또 한편에서는 정력증진 기능도 있다고 한다. 두충에는 Geniposidic acid (제니포시딕 산)이

있는데 이 성분은 두충과 치자나무(Gardenia jasminoides J.Ellis)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를 연구하여 항스트레스 조성물에 대한 건강식품 조성물 특허도 있다.

두충차는 두충나무 껍질을 4월에서 6월 중순 사이에 채취한 후 말려서 사용한다. 이때 실같은 섬유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얇게 썰어서 술로 축축이 적시어 실같은 것이 없어질 때까지 볶아서 쓴다. 주로 차로 마시는데 맛은 약간 달면서 매운 맛이 살짝 느껴진다. 두충차는 약간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 증상으로 부종, 코피, 혈변, 구토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몸이 호전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명현작용이라고 한다. 하지만 한의사나 의사의 조언 없이 개인적 판단에 맡기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도 있다.

동의마당에서 두충이 어떤 나무인지 찾아보고자 한다면, 열매나 잎을 잘라 섬유질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조금 더 힌트를 주자면 사자상의 꼬리가 가리키고 있다.

▶1면에서 이어짐

제 1논문은 가장 일상화된 가치구분인, 세상을 ‘선과 악’으로 구분하는 도덕이 ‘좋은과 나쁜의 도덕’을 대체하게 된 경위를 다룬다. ‘선과 악’, ‘좋은과 나쁜’이라는 두 개념 쌍은 각각 노에도덕과 주인도덕의 가치 판단 기준으로 설정돼 있다. 자신과 자신의 행위에 대한 긍정에서 나온 ‘좋은다는 감정’과 ‘나쁘다는 감정’의 구분은 자신을 가치 창조자로 여기는 귀족적 문화의 특징으로 표현된다. 반면에 니체는 기독교적 도덕의 기원을 강자와 주인에 대한 약한 자들의 원한감정에서 찾고 있다. 이들을 통해 고상한 도덕에 대해 가치 전도가 일어나 “비참하고, 가난한 자, 무력한 자, 비천한 자만이 착한 자이며, 고통 받고 궁핍한 자, 병든 자, 추한 자가 유일하게 경건하고 신에 귀의한 자이며, 축복받는 자”로 해석되게 됐다는 것이다. 반면에 고귀하고 강한 자들은 “영원히 사악한 자, 잔인한 자, 음란한 자, 탐욕스러운 자, 무신론자, 저주 받을 자, 망할 자”가



“우리는 인간에게 지쳐있다”라고 현대의 허무주의를 진단한다

니체는 기독교적 도덕의 기원을 강자에 대한 약한 자들의 원한 감정에서 찾고 있다.

된다. 도덕에 있어서의 노예의 반란이 성공한 것이다.

니체 평생의 테마 중 하나는 노에도덕의 승리로 인한 “인간의 왜소화와 평준화”를 내용으로 하는 현대 유럽의 병이다. 생명력 넘치는 자기긍정과 위대함을 향한 도약, 파괴적인 두려운 힘을 가졌으나 그 힘 자체가

새로운 지평을 열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고귀한 종족은 다 제거되고, 길들여진 평균적 인간만이 남아 인류는 퇴락과 병약화의 길을 걷고 있다.

주인의 도덕, 강자의 도덕은 그 인간의 위대성 때문에 인간에 대한 믿음이 지속될 수 있는, 선악을 넘어선 완성된 인간의 가능성을 나타낸다. 니체는 인간의 왜소화와 평준화를 통해 나타나는 현대의 허무주의를 다음과 같이 진단하고 있다. “인간에 대한 공포와 더불어 우리는 또한 인간에 대한 사랑과 경외심, 희망, 아니 인간에 대한 의지도 잃어버렸다. 이제 인간의 모습은 우리를 지치게 만든다. 이것이 허무주의가 아니라면, 오늘날 무엇이 허무주의란 말인가? ... 우리는 인간에게 지쳐있다.”

니체는 노에도덕의 승리로 마감된 세계사를 조망하며 글을 맺고 있다. 하지만 이걸로 정녕 모든 싸움은 끝난 것인가? 니체의 희망과 기다림을 공유하며, 가치의 창조자인 강자와 주인 도덕의 재등장을 원하는 이들은 그의 후속 논문들을 읽어야 할 것이다.

참여마당

유윤석
(화학공학 2011)



봉사활동을 넘은 ‘배려’

후반기 채용 시즌, ‘스펙’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 시기다. 학점, 토익, 공모전 경험 등 수많은 스펙 중 빠지지 않는 것 하나가 봉사 활동이다. 봉사활동의 종류와 대상은 다양하지만, 가장 주목받는 활동은 ‘장애인’을 돕는 일이다. 적게는 하루에서 많게는 몇 주 동안 장애인의 생활을 돕는 학생들을 많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봉사활동만으로 장애인에 대해, 특히 장애인의 생활에 대해 알았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장애인들이 재활을 위해 다니는 재활원에 대해 소개해 보고자 한다. 보다 객관적인 정보를 전하기 위해, 최근 견학한 미얀마의 재활원과 우리나라 국립재활원을 비교해봤다. 최근 미얀마는 외교를 개방하면서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다. 마치 우리나라가 무역을 강조하며 발전하던, 과거 7·80년대의 상황과 비슷하다. 하지만 재활원 운영에서는 오히려 미얀마가 우리나라보다 나은 점이 상당하다. 장애인들의 정보 수집 경로와 접근성 등이 특히 그렇다.

미얀마 국립재활원의 입원 요금과 재활 요금 등 모든 것은 무료다. 의문이 들 수 있다. 재활이라는 것은 분명 돈이 쓰여 지는 것인데, 무료인 만큼 ‘수입’이 없는 셈이다. 하지만 미얀마는 국제기관의 지원과 모금을 토대로 유지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ICRC(국제적십자위원회)와 JICA(일본 국제협력사업단)이 지원하고 있다.

‘봉사활동’을 넘어, 장애인의 재활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갖길 바란다.

미얀마 정부도 일부 비용을 부담해 국립재활원이 무료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국립재활원은 상당수 보험에 따라 요금이 다르며 병원마다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 무료로 운영 중인 미얀마와 대조되는 부분이다.

무료와 유료의 차이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미얀마 국립재활원의 입실과 퇴원 기준에서 ‘배려’라는 원칙을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입실은 환자 주치의의 소견서가 가장 큰 역할을 한다. 주치의의 소견서 내용에 따라 환자의 국립재활원 입실 여부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얀마 역시 대학병원에서 교수의 소견서를 토대로 환자의 입실을 결정하지만, 이밖에도 추가적인 기준이 존재한다.

우선 처음 사고를 겪은 환자를 중시한다. 과거 사고로 인해 자신의 재활 기구를 교환하기 위해서 오는 것보다, 처음 사고를 당해 ‘재활’ 등에 무지한 환자를 입원시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 또한 국립재활원에 근접해 있는 환자들, 즉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우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환자를 받는다. 재활여건의 차이를 배려한 것이다.

이런 차이만으로도 미얀마보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재활수준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미얀마 국립재활원의 운영정책에 담긴, ‘배려’는 분명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사항이다. 앞으로 ‘봉사활동’을 통해 만나는 것을 넘어, 장애인의 재활 등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갖길 바란다.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취업의 길을 찾자!

금방학교를 졸업하고 머지않아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걸 깨달았으리라, 아니 그런 것들은 있어 버렸으리라

(지금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중에서

- 삶의 길을 묻는 그대 : 1,2,3학년 진로 및 취업관련 상담
- 금방학교를 졸업하고 직업을 가져야 할 그대 : 4학년 1:1 취업진로 지원
- 대 상 : 국제캠퍼스 재학생, 졸업생
- 도움 줄 내용 : 입사회망기업 선배매칭, 자기소개서 리뷰, 기업별 면접정보 기업재무제표관련 설명 등 사회를 보는 눈
- 도우미 : 노동섭 (취업진로지원처 경력개발팀장 겸 학생생활상담팀장) 윤재훈 (취업진로지원처 경력개발팀 계장)
-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 수업/성적/상담 → 상담예약신청 → 취업선택 → 상담가능일확인 후 신청
 - 이력서, 자기소개서 이메일 송부 : 노동섭 팀장(rohds@khu.ac.kr) 윤재훈 계장(jhyoon@khu.ac.kr)
 - ※ 종합정보시스템 예약 및 이력서, 자기소개서 이메일 송부 두 가지 모두 진행해야 신청완료
 - ※ 이력서, 자기소개서 양식은 자유양식이며,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career.khu.ac.kr)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작성가능
- 장 소 : 학생회관 1층 취업진로지원처 상담실



국제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